매달 경로잔치 '부드러운 여권운동'

신행현장 | 불교여성회 봉사활동

"할머니, 할아버지 이 노래 한 번 따라해 보세요."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인권법당 길상사에서 흥겨운 노래가락이 흘러나왔다. 길상사 2층 법당에서는 가회동경로당, 북촌경로당, 월서경로당에서 온 어르신 50여명이 불자 가수 김무환씨의 공연을 보며 즐거워 하고 있었다.

이어 불교여성회원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점심공양이 들어왔다.

길상사 주지이자 불교인권위원장인 진관스님은 "길상사가 안국동으로 이사온 뒤 매달 경로잔치를 열게 된 것은 불교여성회 회원들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보시와 자원봉사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절에 와서 마음을 편안히 하고 즐거운 한 때를 보내는 것이 '작'만 큰 인권운동'"이라고 불교여성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아주 맛있어. 절에 와서 점심을 먹고 법문도 들으니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

매달 초이레 불교여성회가 길상사에서 마련하는 경로잔치는 이처럼 소박하지만 뜻깊다. 정겨운 대화와 작은 무대로 감동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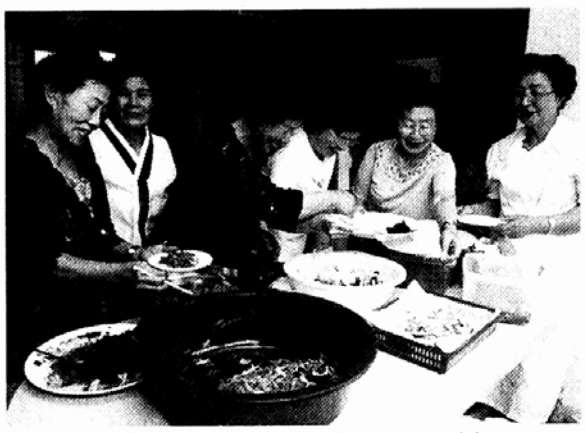
경로잔칫상 주위를 맴돌며 부족한 음식 채워주기에 여념이 없는 이동화보살은 "할머니 · 할아버지를 모셔 작은 잔치를 여는 경로잔치를 여러 불자들과 같이하면서 큰 감동을 받는다"며 "주위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 사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도 진관스님의 법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덕담에 이어 비구니 스님들의 승무, 구품연지춤연구회(회장 오영희)의 춤 공양이 펼쳐졌다.

불교여성회는 창립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달 지역 어르신 경로잔치, 민주화 인사 위령재 등 일에서부터 여성운동에 관심을 갖자는 취지로 모인 열린 신행단체. 길상사를 중심으로 불교인권위 여성 후원자들과 서울 청량사 신도들, 서울대병원법회 자원봉사자들, 봉은사 자은회, 선재회 회원 등 40여 구성원들이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와 민주화 인사 천도재 등을 매달 개최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였다.

40여 회원 적극 참여
소외이웃 봉사 '먼저'
사회역할 확대 '점차'

직장 및 가정내 여성폭력문제, 여성근로자 탁아문제, 일본군위안부, 기지촌 여성문제 등 관심사가 다양하지만, 우선 여성으로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작은일에서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무하씨등 회원들이 어르신들에게 공양할 음식을 나르고 있다.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실천위주의 불교운동을 펼쳐갈때 이 사회가 점점 변모해가고 궁극적으로 '불국정토'에 가까워 질 수 있다는 신념에서다.

회원중의 한명인 장기표씨의 부인 조무하씨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논술강의를 시작하는 등 작은 일부터 실천해 역량이 성숙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불교여성운동을 펼친다는 것이 이 단체의 방침이다.

이러한 불교여성회의 활동방침은 회장인 성법스님(전 청량사 주지)의 원력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 청량사에서 중학생 1명, 고등학생 2명을 키우고 있는 성법스님은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는 것을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첫 번째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

성법스님은 "소외된 이웃을 부처님처럼 공양하다 보면 여성의 자아실현, 남녀평등의 구현, 소외계층의 해소가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며 "여성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02)734-640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남의 소를 세는 사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면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국정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국민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간이 지속되면 자칫 나라 망하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컴퍼스로 원을 그릴 때 중심이 흔들리면 둥근 모양을 제대로 그려낼 수 없는 것과 같다. 개인의 삶에서도 이 '중심잡기'란 매우 중요하다. 인생의 길, 학문의 길에서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삶은 일그러진 모습이 된다.

수행의 길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그 수행이란 평생 우왕좌왕에 그치고 만다. 제 스스로는 신심 돈독한 불자라고 할 지 모르나 고작해야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하며 환상을 좇거나, 신장의 가피를 갈구하고, 도력 높은 스승을 찾는다며 몸만 분주하게 된다.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비유하자면 빈 집과 같다. 빈 집에서는 부랑자들이 오며 가며 제 멋대로 드나든다. 뭇 짐승, 벌레들도 제 집처럼 들락거린다. 그러니 머지않아 창문 뜯기고 벽 헐어지고 기둥 썩어 쇠락하게 된다. 때로는 엉뚱한 놈이 들어와 제 집인 양 주인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중심을 잃은 사람의 삶은 세월이 흐를수록 황폐해져 속절없이 병고액난에 시달리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중심잡기에 대해 '법등명 자등명'으로 대답하셨다. 자성부처에 귀의하고 가르침을 지표로 삼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자칫 현혹되기 쉬운 명호와 형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법'을 근본으로 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 그래야만 비로소 누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그 독존(獨尊)이라 이를 만하다고 하셨다.

현대과학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불자라고 자부하는 이들 가운데 도력찾고 영험찾고 부적찾는 이들이 있다. 오관을 춥증하게 갖추고 태어났으면서도 자성부처를 찾을 생각은 안하고 밖으로 두리번거리며 남이 해놓은 것을 구걸하느라 여념이 없는 이들이 있다. 제 목장은 돌보지 않고 남의 목장의 소를 세는 사람들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호국영령 위로하는 달 극락왕생 기원 합시다"

성운스님
삼천사 주지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을 위로하는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군이래 1,300여회의 크고 작은 주변국들의 외침을 받아오면서도 나라를 유지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어 자주성을 지켜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숱한 목숨이 산화되었고 또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오늘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안녕과 안보에 있고, 불교의 본 뜻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살기 좋은 국토를 건설하는 데 있으니 결국 호국(護國)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국가와 민족이 위난에 처 했을 때 전선에 나서서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

"중생의 삶 윤회환생
좋은 곳서 태어나길"

고 싸운 호국정신이 역사속에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호국영령들을 위로하고 이 영혼들이 안주하고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하는 사명을 지닙니다. 이를 우리는 천도(遷度)라 부릅니다.

천도(遷都)란 천혼(薦魂),천령(薦靈)이라 하며 죽은 이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불보살님께 재(齋)를 올리고 영혼들로 하여금 정토 극락 세계나 천상에 태어나도록 기원하여 좋은 길로 천거하는 법식입니다. 시식(施食)이란 널리 베풀어 먹임이니 천도재를 올릴 때 천도하려는 영가 뿐만 아니라 선망 부모와 일체 유주 무주 고혼 등을 모두 청하여 그들에게 널리 법문과 염불을 해주고 음식을 베풀어주는 일입니다.

천도, 시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사십구재(四十九齋)로 사후 49일에 올리는 천도재, 둘째는 예수재(豫修齋)로 죽은 뒤에 행할 불사를 미리 생전에 닦는 재로 미리 사후의 길을 닦는 참회의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수륙재(水陸齋)로 물과 육지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공양하는 재식의 법회입니다. 이는 중국의 양나라 무제가 제불보살의 몽중수기를 받아 대덕큰스님에게 수륙의문(水陸儀文)을 짓게 하여 백승재를 지낸 것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때 수원의 길양사에서 해거국사가 최초로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중생의 삶은 단 한번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단지 윤회환생 할 뿐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아주 선한 업을 지은 사람은 그 과보로 곧바로 천상에 태어나고, 반대로 극악무도한 사람은 곧장 지옥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중음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음신은 49일이 지나도 다음에 태어날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 가족이나 친지들의 기억 속에서도 멀어지고 결국에는 아주 잊혀지고 말면 우주공간에 떠도는 한맺힌 혼백이 되고 맙니다.

이 같은 중음신이 있게 되면 그 집안은 편치 못하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혼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 살아생전의 가까운 인척이나 친구들 주변을 맴돌면서 천도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고혼을 천도하는 일은 죽은 영가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히 나라를 위해 산화한 호국충혼열사나 자기 주변에 가까운 일가 친척의 영혼들을 천도하여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유주, 무주의 영가들이 모두 왕생극락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신행 캘린더

6월 8일 (금)

■사찰음식 전시회=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림정보산업대학 본관 3층에서 전통사찰음식 전시회를 개최한다. (02)355-5961

■인터넷 관리자 연수=대한불교진흥원은 9일 9시부터 충북 괴산 다보사 다보수련원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포교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불교계 인터넷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실시한다. (02)719-1855

■남북화해 세미나=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오후 2시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불교의 평화 정신과 남북 화해'를 주제로 창립 1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연다. (02)735-5864

6월 9일 (토)

■전국불교청년대회=대한불교청년회는 10일까지 서울 조계사에서 '수행, 교육, 실천이 하나되는 청년붓다'를 주제로 제20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한다. (02)738-3385

■철야정진 수련법회=조계사 불교대학 청년회는 10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철야정진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02)720-1390

6월10일 (일)

■운불련 체육대회=한국운전자불자연합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주 금산중 · 고등학교에서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를 실시한다. (053)764-0763

■양로원 봉사활동=능인불교대학 27기 법우회는 오전 8시 경기도 화성 자재정사 양로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011-285-0082

6월 12일 (화)

■본존불 점안 대법회=중앙승가대학교는 오전 9시 김포학사 법당 본존불 점안 및 삼천불 봉안 대법회를 봉행한다. (031)980-7777

■한불언 정기총회=한국불교언론인회는 오전 12시 마포 불교방송 2층 언론인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02)719-4084

6월 13일 (수)

■삼사순례법회=대구 법왕사는 오전 8시 '삼사순례법회'를 실시한다. 청송 대전사, 청하 보경사, 안강 대흥사 등 대구지역 사찰을 순례한다. (053)766-3747

■불교사상강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권기종교수(동국대 불교학)를 초청해 '윤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불교사상 강좌를 개최한다. (02)703-0108

부처님 꽃 친견 및 삼사 성지순례 법회
(운봉산 백운사 아미타부처님 몸에 핀 꽃 친견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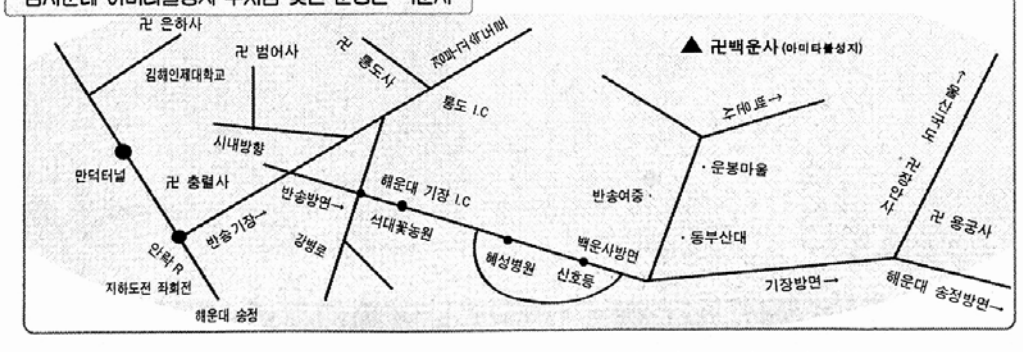
경진년(경진년) 설달 보름날 오후(밤)12시 가량 밝은 달 주변에 오색 무지개가 둥근 타원형을 그리며 넓게 자리를 잡고 오색 찬란하게 하늘을 3,4시간 수 놓다 소납은 넋을 잃을채 하늘을 감탄하며 한편은 기쁨에 소뼉치며 춤을 추면서 하늘의 길조가 곧 땅의 길조로 이어지며 그빛이 한반도를 빛추는 느낌에 반만년의 시련과 고통, 힘든 이 국토에 큰 영광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왔다.

신사년(신사년)에 삼재가 들어오므로 삼재자를 위해 부처님전에 개금공양을 올려야 겠다는 발원으로, 평소 예불시 상단 불보살님 한단부분에 개금 탈색이 심한것을 보고 정성 부족 한탄 참회하면선, 또한 나라와 신도님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금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개금 도색 하기위해 탁자에서 내려놓고 털고 닦는 도중 소납과 불모의 누에 물체가 환하게 빛쳐오므로 발견하게 되었다. 개금불사를 추진해야 겠다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를 오늘에야 부처님의 가피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법화경 속에 우담바라가 피면 나라에 전륜성왕이 출현하여 나라 안팎을 안락과 평화 풍요롭고 복된 삶을 이루신다 하셨다. 3000년 마다 한번 피는 우담바라가 상상속의 꽃으로 간주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지금처럼 말법(말법)시대에는 중생들에게 구제와 희망을 바라고, 국가의 전륜성왕이 나올길 바라는 것으로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종교적인 상징이 더욱 더 크다. 불교는 바른 믿음을 통해 알고 행동하며 깨닫는 것이다. 대법회의 인연으로 이나라 이국토에 희망과 보람과 발전이 거듭나기를 바라며 모든 가정과 마음에 염원을 담아 화려하게 꽃 피우고 새삶을 이르시길 다같이 기원 합시다.

운봉산 백운사 주지 마나 합장

삼사순례 아미타불성지 부처님 꽃핀 운봉산 백운사



※ 대형차량(버스)은 동부산대 입구에서 하차하십시오.(백운사 봉고사 운행 이용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 산 136번지 운봉산 **백 운 사** TEL 051-542-4630

ENGAGED BUDDHISM
참여불교

격월간 참여불교 창간호(2001년 5,6월호) 일반서점에서도 구입할수 있습니다

값 5,000원
1년 정기구독 25,000원

한국의 종교권력 현주소는 어디에…

창간기획 좌담 교단자정운동의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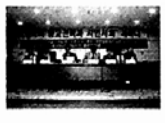
기획연재
- 국가권력과 종교
- 세계의 공동체를 찾아서

논단
- 재가종무원, 전문직인가 부목인가
- 포교를 위한 인터넷 활용 방안

특별기고
- 동국대 불교학부 원로-중진 교수님께 드리는 고언
- 불교회관 이렇게 짓자

교계초점
- 얼굴없는 말, 괴문서 현상

손혁재의 세상읽기
- 남북화해시대 통일운동의 새로운 방향



"종교 내적인 자기 정화의 기운이 일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입니다"

인류의 큰 스승이신 종교성인들이 보여준 삶의 길은 탐욕을 벗어난 자유의 삶이었으며, 부와 명예를 벗어 던진 청빈과 겸양의 삶이었으며, 만 생명의 고통을 벗게하려 일평생 길 위에서 쉼이 없었던 정진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교단은 교단을 만드신 처음 그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가르침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형건축물의 어두운 방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스스로의 깨침과 함께 고통의 현장을 돌봄으로써, 그 자리에서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창간특집
- 시민사회 관점에서 본 한국종교의 사회적 역할
- 한국의 종교, 그 존재 당위성 여부 문제에 대하여
- 권불유학 퇴살아나는가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www.buddha21.org

전화 02-725-6231~2 팩스 725-6233 buddha21@budgate.net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302호

연간 구독료 2만5천원